

지자체 최고 시책은 도시브랜드 제고, 복지·SOC 확충

전남 기초단체 10대 뉴스로 본 '올해의 우수 시책' 목포 관광도시·영광 인구정책·여수 해상교량 개통

전남 22개 시·군이 '올해의 우수 시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지역민들은 도시의 자부심을 드높인 시책과 복지, SOC 인프라 확충을 통한 편익을 최고의 시책으로 꼽았다.

◇도시브랜드 드높인 시책 '첫 손'

순천시민들은 '올해 10대 뉴스' 1위에 '순천시 인구, 광주와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 등극'을 선정했다.

순천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28만2618명으로 28만2582명에 그친 익산시를 36명 앞질러 광주와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에 올랐다. 순천시는 그동안 생태도시를 지향해 온 도시 정책을 기반으로 안전·교육·교통·힐링 등 중장기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결과, 전남 제1 도시를 뛰어넘어 호남 3대 도시에 등극해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준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목포시는 올해의 최우수 시책으로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선정'을 꼽았다.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관광분야 사업으로 서울로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관광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목포

는 5년간에 1000억원이 투입돼 세계적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목포만의 근대역사문화, 맛과 음식 등 특화 자원과 관광 잠재력을 내세워 지난해부터 독심 있게 준비해 얻은 결과물이다. 목포시는 100년의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한 근대 역사문화공간을 세계적인 도보 여행의 메카로 만들고, 평화광장 해상판타지쇼를 운영하는 등 목표형 관광거점도시 계획을 최종 수립했으며, 곧 정부의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주요 사업들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영광군은 올해를 빛낸 최고의 시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군,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의 영예를 안겨준 '인구정책'을 꼽았다.

영광군은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결혼·출산·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1.82명) 전국 2위에 이어 올해는 '2.54명'으로 늘어나 1위로 올라섰다.

◇모두가 고루 즐거운 '복지'

광양시민들은 전남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긴급 재난생활비와 마스크를 지원한 것이 10대 뉴스 1위로 선정했다.



영광군은 올해를 빛낸 최고의 시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군,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의 영예를 안겨준 '인구정책'을 꼽았다.

광양시민 3명 중 1명(34.4%)이 우수 시책으로 꼽은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무안군은 올해의 우수시책으로 '공공형 버스 순환노선 운행'을 선정했다.

순환노선 운행은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와 농촌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주민 편의 제고 노력에 군민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은 군민이 뽑은 올해의 우수시책으로 '가스안전 타이머'를 1위로 꼽았다.



영광군은 올해를 빛낸 최고의 시책으로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왼쪽), 여수시는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교량 개통 사업'을 올해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곡성군은 군비 2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65세 이상 독거 및 부부노인 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심한 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 가구 등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타이머를 설치했다. 타이머는 가스 중간 밸브에 장착해 과열 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가스사고 예방 안전장치다.

◇오늘 보다는 내일 'SOC 구축'

남해안 섬관광의 신호탄인 '여수-고흥 간 해상교량 개통'이 올해의 여수시정 성과 1위로 뽑혔다. 지난 2월 화양-적금 해상교량 개통으로 여수에

서 고흥까지 거리를 한 시간 이상 단축해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임시개통 5일간 3만8000여 대의 차량이 몰리는 등 아름다운 해상드라이브 코스로 국민적 인기와 관심 속에 섬 관광 시대 개막을 알렸다.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이 기대된다. 장성군민과 공직자들은 14년 만에 이룬 국립심뇌혈관센터 예산 확보를 올해의 10대 정책 첫 손에 꼽았다.

이는 장성의 미래 발전을 이끌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시 평화광장 리모델링 공사 오늘 재개

주민 민원으로 한달 넘도록 중단 회전교차로 없애고 양방통행 수정

주민 반발로 중단됐던 목포 평화광장 리모델링 공사(광주일보 9월9일자 12면)가 28일부터 재개한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착공한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달 11일 인근 아파트와 일부 상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업은 보행자와 차량의 혼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평화광장의 해변차로를 없애고 인도와 녹지공간을 재조정하는 등 보행자 안전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사업이다.

현재 평화광장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돼 시설 노후화, 노점상, 불법주차, 보행자와 차량 혼용 등의 문제로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계획 수립을 위해 3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착공했다.

하지만 달맞이공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 및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1월 11일 공사를 잠시 멈췄다.

달맞이공원 일부는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 계획에 따라 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공원



해변차로를 없애고 인도와 녹지공간을 재조정하는 목포 평화광장 리모델링 공사가 28일부터 재개된다. 사진은 목포 평화광장 전경. <목포시 제공>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달맞이공원 훼손 반대와 주변 상인들의 양방향 통행 및 주차장 추가 확보 요청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목포시는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원내 도로개설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조성계획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달맞이공원에 조성 예정이던 주차장이

축소됨에 따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해변도로 일부 구간을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 소통을 통해 주민의 요청 사항을 최대한 반영,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장흥군 새마을지회 '생명 디자인 공모전' 눈길

장흥군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운동의 대전환 차원에서 기후 위기·생명 위기를 고려한 창의적인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화제다. <사진>

장흥 새마을지회는 지난 24일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생명·평화·공경을 주제로 일러스트레이션과 포스터(시각디자인) 2개 부문 공모전을 시행해 우수작 3점을 선정했다.

대상(1명)에게는 100만원, 최우수상(1명)은 70만원, 우수상(1명)은 3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김명환 장흥군 새마을지회장은 "디자인 공모전



은 참신성, 차별성, 독창성 등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변환의 특징을 살리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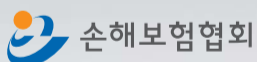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곡성군, 백신 공급 대비 유통 관리 강화

곡성군은 백신 유통과 관리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 대상포진 백신 공급 과정에서 콜드체인 등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을 마련했다.

곡성군은 의약품 납품 도매상에 백신약품 구매 후 입고 시까지 전 과정의 콜드체인 유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의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합 수송 용기로 운반해 줄 것을 업체에 요구하고, 보건지소는 약품 배송 시 배달소요 시간·온도 등을 확인한다. 또 백신 보관 냉장고 전면 유리에 빛가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백신 용기를 빛차광용기로 제조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